

알려 드립니다!

퀵른 한빛교회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와
독일 정부 정책의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며 드리는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와 현장 예배 시간은 13 시입니다.

현장 예배는 매주 6 개 순 중심으로 진행되며
참석하는 순은 매주 미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 년 2 월 7 일

퀵른 한빛 교회 담임목사 임지웅 외 임원회 일동

* 외부에서 저희 교회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참석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참석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박종철 장로 0174 9395 002/ 이우영 집사 0176 4340 1329

주일예배

마리아 헌신예배

Gottesdienst

* 예배초청 Eingangsspruch		임지웅 목사 Pastor J.U. Lim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다함께 Gemeinsam
* 찬양 Loblied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다함께 Gemeinsam
대표기도 Fürbitte		장화숙, 방임숙, 강연희 Seniordiakonin H.S. Jang, L.S. Bang, Y.H. Kang
봉헌 Kollekte	참 아름다워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314장)	shalom찬양대, 마리아회 Shalom Chor, Maria Gruppe
교회소식 Gemeindeinfo		임지웅 목사 Pastor J.U. Lim
찬양 Loblied	나를 통하여	김보길, 박세진 B.K. Kim, S.J. Park
설교 Predigt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민수기 14:24, 여호수아 14:8) Dem Herrn von ganzem Herzen folgen (4. Mose 14,24; Josua 14,8)	최용준 목사 Pastor Y. J. Choi
* 찬양 Loblied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다함께 Gemeinsam
* 축도 Segen		최용준 목사 Pastor Y.J. Choi

* 표는 일어서서

현장예배 참석 안내

7월	18일	마리아/모세					
	25일	순7(이강휘)	순8(김영희)	순9(이정명)	순10(김자숙)	순11(한동일)	순12(박선순)
8월	1일	순13(황정준)	순14(박영란)	순15(안정하)	순16(안정숙)	순17(유연희)	순18(육은선)
	8일	순19(주숙영)	순20(이은혜)	순21(지광자)	순22(주은경)	순23(최연희)	

교회 소식 | Gemeindeinfo

- ◆ **현장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장예배에 오시면,**
FFP2 마스크 또는 의료진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회중찬양은 소리내지 않고 드립니다.
- ◆ **오늘은 마리아현신예배로 드립니다.**
- ◆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최용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 **유아세례증서 배부** •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유아세례증서(독어본, 한글본)를 배부하오니 주숙영 권사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순모임** • 7월 순모임은 Zoom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8월 한달은 순모임 방학입니다. 7월과 8월 중 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 ◆ **선교부** •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보고와 중보기도 제목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세미나 및 신청**
 - 중보기도 세미나** • 시간 : 7월 31일 10시-12시 30분
 - 장소 : 교회 Gemeindesaal, Zoom
 - 인도 : 임지웅 목사, 전해진 전도사
 - 대상 : 중보기도팀과 관심이 있으신 분 (교재 필요시 유연희 01633807445)
 - 하반기 순장반 세미나** • 일시 : 8.21(토) 9:00 - 12:00, Zoom 온라인
 - 주제 : 순 소그룹 모임 워크샵
 - Q.T 연간구독 신청** • 연간구독 신청을 합니다. 각 순의 순장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1년 10월-2022년 9월
 - 구독료 : 연간 20유로 (월별구독시 월 2유로)
 - 신청기간 : 7월 25일까지
- ◆ **[교우소식] 새가족** : 김선우 목사 가정 (김성은 사모, 김하랑) - 청년부 담당,
조하나(순18), 김수진(순4)
방문자 : 이윤경, 박다영

지난주 헌금통계 | Kollekteneinnahme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	기타	건축헌금(누계)
259,29	1.870,00	20,00	0,00	300,00	0,00	55,00	675.420,85

- 교회계좌 : Sparkasse Köln/Bonn, BIC_COLSDE33XXX, IBAN_DE22 3705 0198 0011 9122 01
- 주일예배 헌금은 현장예배에서 드리시거나 교회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김익진 선교사님 선교보고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저희가 섬기는 콩고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단합하여 교회들을 섬기도록 기도해주시고, 9월에 제가 못가는 대신 총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열리는 일주일간의 집회가 은혜가운데 마쳐지길 소망합니다. 남아공 신학교는 아직 문을 못 열었으나 신입생 14명 모집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지란드와 모잠비크에서는 앞으로 학생을 남아공으로 모집하지 않고 각 나라에 신학교를 세워 가르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계획 중인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우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어진 일에 헌신하며 학생들이나 모두 제자들로 키우려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사역했던 대학교 교회 어린이 찬양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중보기도제목

남아공 신학교

- 신입생 14 명이 모집될 수 있도록
- 온라인 수업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 대리교장이신 Pastor Fritz (MA)가 충성스런 일꾼 되도록

콩고공화국

-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콩고의 75 개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도록
- 신학교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교

- 올바른 기독교대학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의과대학의 정부 최종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 새롭게 세운 세종한글학당에 일해주실 합당한 사람이 오도록
- 체플건물을 짓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1,000 석 건물이 완공되도록
- 에스와티니 왕이 하나님/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도록

선교사님

- 제가 나이가 들어 때로는 몸이 불편할 때도 있으나 영, 혼, 육이 정결(건강)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 집사람의 한국 방문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오가는 길도 지켜 주시도록

나승필 선교사님 선교보고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저희 난민 교회 또한 방역대책을 하면서 대면예배를 중단없이 드렸었습니다. 대면예배에서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원근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심중히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으로 인해 음식을 나눌 수는 없지만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적은 음식 봉투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몇 개의 소그룹별 줌 미팅으로 지난주 설교말씀 나누기와 성경본문 쓰기, 기도와 교제, 그룹별 온라인 성경공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별 방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 세례식 준비공부와, 에이펜 (중동과 유럽에서 페르시아와 아랍어권 한인 난민선교사 네트워크) 사역, 신학교 강의 사역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진을 첨부 드립니다.



중보기도제목

-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기간에도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도록
- 주일예배와 주간의 그룹활동에 참여하고 힘을 얻고 소망중에 살도록
- 팬데믹 이후의 선교와 교회의 활성화가 되도록
- 회교권출신들이 대다수인 세례식 준비기간에 갈등과 방해가 아닌, 진리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도록
- 세례식 준비기간을 통해 시메온 형제의 병든 영혼과 육신에 치료가 되고, 아울러 순종하여 세례를 결정하도록
- 함께 사역하는 저희가족(아내와 아들 포함)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 여러모양으로 복음전파와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짓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거룩한 승리를 하도록

이재영 선교사님 선교 소식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저는 요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며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선교사라면 누구나 이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복음적인 선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함을 격감하고 있을 것 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현지 적응을 위한 시간에 더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역을 위해 고민하고 한 가지라도 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6월 말 가족 모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버텨오던 터라 아이들을 물론 저희 부부 역시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했고, 더욱이 아내의 복막염 수술 이후 가능하다면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라도 올 여름 한국을 방문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인 김정은 선교사는 현재 많이 회복된 상태이지만 수술 후 여전히 미심 적은 부분들이 있기에 검진이 필요하고, 제 자신과 가족들의 치과 치료 및 기타 건강 체크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과 자가격리 중에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제목

- 불가리아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 효과적인 선교전략과 그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사역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혜주시고 힘주시기를
- 작년에 시작된 축복학교의 재개를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맞게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 불가리아 감리교회들이 더욱 활력을 찾고 부흥될 수 있도록
- 한국 방문 동안 건강히 지내다가 선교지로 무사귀환 할 수 있도록
- 이번 한국 방문을 기점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길들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구축되기를 기도부탁 드립니다.

전희승 선교사님 선교보고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황폐해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어 영혼을 살리는 큰 군대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 귀한 헌금을 공급해 주시니 큰 힘을 얻습니다. 마침 마다가스카르에 선교비를 보냈어야 했었는데 귀한 사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식량과, 의류, 과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민학교 4 곳에 의류와 쌀, 비스킷,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선하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있는데, 마다를 떠나있음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시간에 보내주신 물질은 부담을 내려놓게하는 큰 위로였습니다.

한빛교회가 새로운 복음 사역을 이끌어 나갈 원동력을 지닌 교회로 더 깊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중보기도제목

- 매년 기근에 시달리는 건조기후인 남부 지방이 최악의 가뭄으로 100 만명 이상 기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남부 지방에 일회성 도움이 아닌,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빈민가의 호산나 학교들이 코로나로 인해 휴교와 개교를 반복하고 있는데, 좁은 집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찬양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성령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길
- 전희승 선교사님께서 수술한지 여러달이 지나도 간헐적 통증이 심해 아직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여 그 능력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 마다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지도자들을 깨우사 국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다를 살리고 변화시키기를
- 우리가 어느 공간, 시간에 거하든 신앙을 잘키겨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 두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예비하신 배우자를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